

## 광주·전남, 2차 이전 공공기관 '빅 10' 콕 찍어 요구

이 대통령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  
시·도, 희망 리스트 40개 확정  
정부에 핵심 10개 기관 공식 건의  
통합특별시 성장 엔진 확보 총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핵심기관 10곳을 꼽아 광주·전남에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와 전남의 여망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한 ‘광주·전남 공동 유치 희망 기관’ 40곳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시도는 광주·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수록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애초 정부가 제한한 5개 기관보다 2배 많은 10곳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못 박아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 유치 대상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의 기존 주력 산업인 농생명, 에너지 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할 거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 기지이다, 이미 1차 이전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둘지를 듣는 곳”이라며 “여기에는 농협과 수협 본부가 더해진다면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의 최적지라고 했다.

강 시장도 ‘AI 중심도시’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 핵심 유치 대상 10개 기관

- 농협중앙회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환경공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공항공사
- 수협중앙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마사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 선물 ‘한가득’ 설명절을 앞두고 11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들이 소포와 우편물을 분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의제 무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

11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협심탄화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누기식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전 대상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또 “정·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나 광역 자치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

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번엔 별도 회담은 없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강 실장은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민석 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까지 법 통과돼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

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락이나 이해관계가 아니

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P assion [열정], V ision [비전],  
T 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몰”  
꼼꼼한 생산자  
& 알뜰한 소비자의 만남

“우리는 곡성몰 합니다.”

곡성몰 검색

<https://gokseongmall.com>

곡성몰에서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하세요

FRESH VEGETABLE  
FRESH VEGETABLE  
곡성몰

매달 진행하는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